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2월 27일(月) : 주간회의(14시), 업무 협약식 도서출판 기억(15시)
- 02월 28일(火) : 광주, 전남 회원모임(17시)
- 03월 03일(金) : 운영위원회의(17시)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학연구소·연구원,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야간강좌는 매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강의는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한지산업관 202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독 교재로는 『송사 기우만 행장』을 강독할 예정입니다. 금주는 야간 강좌 대신 대마도를 답사하였습니다.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요일 16시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사료읽기팀 대마도 답사

: 지난 해부터 매주 진행되고 있는 야간 강독모임에서 면암 최익현을 비롯한 선현의 흔적을 찾아 2월 20일~21일 1박2일에 걸쳐 대마도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서경식 교수 강연(2월 21일)

: 우리 연구원과 공동사업 기관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2월 21일 오후 3시부터 도교경제대 서경식 교수를 초청하여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로 세계적인 '증언문학' 작가 중 한 사람인 프리모 레비(1919~1987)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반성에 앞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지 말고 대중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 것이며 피해자가 원칙이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서경식 교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울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뉴스레터를 통해 소식을 접한 여러 회원과 전주대학교 학부생을 비롯 사학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여 보다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진안지역자활센터와 협약체결(2월 22일)

: 2월 22일에 우리 연구원과 진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완술), 양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후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약속하였습니다.



○ 광주·전남 회원모임 안내(2월 28일)

: 광주·전남에 살고 계시는 회원 분들과 2017년 사업을 공유하고 새해 다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2월 28일 광주시 광산구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에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회원들도 격렬하게 환영하오니 편안하게 함께 하여주시시오. 차량도 준비되었으니 부담 없이 사무국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 일 시 : 2017년 2월 28일(화), 오후 5시부터

◆ 장 소 : 낮엔 밥상 저녁엔 술상(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6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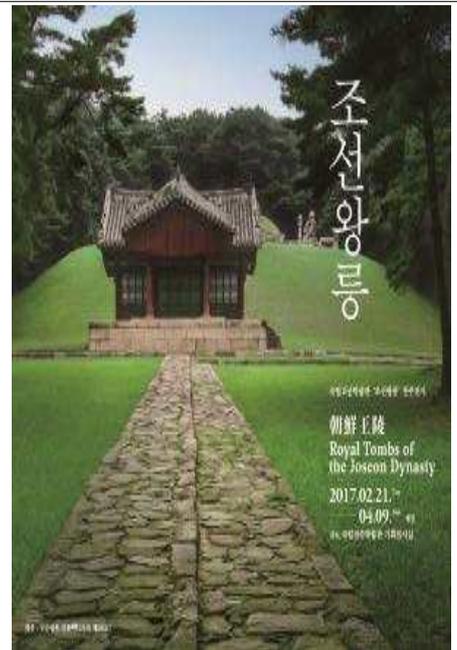
○ 국립전주박물관 왕릉전시

: 국립고궁박물관의 2016년 상반기 특별전을 2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의 왕실문화와 통치철학, 국가이념의 결정체인 조선왕릉의 다양한 유물, 자료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왕릉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주에 남아있는 태조의 시조 이한과 부인 경주 김씨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 이한의 묘역으로 전해지는 조경단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기간 : 2017.02.21.(화)~04.09(일)

◆ 장소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雜詩(第2首)

잡시(제2수)

君自故鄉來(군자고향래)

그대 고향에서 왔으니

應知故鄉事(응지고향사)

응당 고향 일을 알리라

來日綺窗前(내일기창전)

떠나오던 날 비단 창 앞에

寒梅著花未(한매착화미)

추운 매화가 꽃 달았던가, 안 달았던가?

■ 작자소개

- 왕유(王維; 699~759). 당나라 때 저명한 시인이며, 화가로 시, 음악,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고, 남종화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남종화는 문인화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화풍으로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표현양식을 채택하였으나, 산수화를 발달시킨 최초의 사람 중의 하나로 특히 유명하다. 그는 자연의 정치와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노래한 시인으로 이백(701~762), 두보(712~770) 등의 유명한 당대 시인들과 함께 서정시 형식을 완성한 시인으로 손꼽힌다.

■ 감 상

- 시인은 고향(故鄕)을 떠난 지 오래다. 세파(世波)에 휩쓸려 살다보니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잊을 수도 잊혀 지지도 않는 게 고향(故鄕) 아니던가? 길을 걷다가인지 주막에서 인지 알 수 없지만, 시인은 고향 사람을 만났다. 그것도 고향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만나자, 그간 잊고 지냈던 고향 생각이 불현듯 간절해진다. 이인칭 존칭 대명사인 군(君)으로 부를 만큼 그 고향 사람은 소중하다. 그 이유는 그 분으로부터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궁금하기 짝이 없는 고향의 딱딱딱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몹시 흥분되었을 터이지만, 시인은 의외로 담담하다. 온갖 것들이 다 궁금할 터인데도 시인이 물은 것은 달랑 한 가지이다. 그것도 가족의 안부가 아니다. 궁금증이 돋은 사람에게서는 한가하다고 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고향을 떠나오던 날(來日)을 언급한 것은 시인이 가장 최근의 소식을 접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럼 시인이 가장 궁금한 최근의 고향 소식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바로 매화였다. 비단 무늬 새겨진 창문(綺窓) 앞에 서 있던 매화나무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면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매화이며, 매화 중에도 비단 창문(綺窓) 앞에 있는 매화일까 아직 잔설(殘雪)이 남아 있을 때 피는 것이 한매(寒梅)이지만, 이 매화가 피었다는 것은 봄이 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시인은 고향에도 봄이 왔는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면 왜 하필 비단 창문(綺窓) 앞의 매화일까? 기창(綺窓)은 비단 무늬를 아로새긴 창문으로, 보통은 여인네들이 기거하는 방에 달려 있는 창문이다. 그렇다. 비단 창문이 달린 방의 주인은 바로 시인의 아내였던 것이다. 시인의 아내는 비단 창문 앞 매화가 꽃 필 때를 손꼽아 기다렸다. 왜냐하면 봄이 오면 타지를 떠도는 남편이 돌아올 것 같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시인은 거꾸로 비단 창문 앞 매화꽃이 피었는지를 물었던 것이다. 결국 시인은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의 소식이 궁금했던 것이었다.

고향이 그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막연한 그리움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비단 창문 앞 매화와 같은 운치(韻致) 아니겠는가?

간편하게 먹는 건강한 한끼
구수함은 기본, 더 건강한
3가지맛 누룽지

쌀 / 현미 / 보리



김제평야의 질 좋은 쌀과 현미, 보리로 만든 - 금싸락누룽지

드넓은 김제평야에서 자란 간척지 햅쌀과 현미, 보리로 정성껏 만들기에
더욱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을 가득 담은 바삭하고 고소한 영양식입니다.

■ 금사락 누룽지 판매 가격

종류	규격	가격		비고
		정상가	할인가	
금사락 누룽지	150g*10봉	23,000	21,000	
	150g*20봉	44,000	42,000	
	200g*10봉	27,000	24,000	
	200g*20봉	52,000	48,000	
	3kg	33,000	30,000	
	750g*2봉	19,800	18,000	
	750g*4봉	39,600	36,000	
	750g*6봉	59,400	54,000	
금사락 현미 누룽지	150g*10봉	28,000	25,000	

※ 연구원 심범식 회원이 직접 생산하는 맛있는 누룽지입니다. 설 이후에도 연구원 회원 들께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택배비 : 3,000원(40,000원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